

# 탁주 한 사발, 독 쏘는 발명

## 청풍에서 고향 막걸리로 돌아온 최진순 회장

“청풍에서 떠나고, 물 장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발명가라는 사람이 봉이 김선달처럼 물만 팔 수는 없잖아요. 기쁠 때 마실 수 있고 슬플 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친구를 만났을 때나 공양을 할 때 마실 수 있는, 술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막걸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2006년 (주)찬우물을 설립, 청정지역 강화의 지하 303m 천연암반수를 최신공법으로 빚어낸 고향 막걸리를 개발, 전통주의 맥을 잇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69세 발명가 최진순 회장을 만나보자.



**국** 내 공기청정기 시장의 역사를 썼던 청풍의 최진순 회장이 전통주 사업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찬우물이 바로 그것. 찬우물이라는 유명한 약수터가 있는 곳인데, 물이 차고 맛있어서 예로부터 명정(名井)으로 일컬어왔다. 또한 찬물이 나는 마을로 상징화되어 마을 이름을 냉정리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 제25대 왕 철종이 임금이 되기 전 강화도령원범이었던 시절, 동네 처녀 양순이와 사랑을 속삭이던 약수터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현재 시판 중인 '강화 고향 생 막걸리'는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의 지하 303m에서 끌어 올린 청정수와 강화섬쌀을 비롯한 6년근 인삼, 강화토종 순무, 사자발 약쭉의 원료가 어우러진 웰빙 전통주이다.

이 막걸리는 발효제로 누룩 대신 유산균을 써서 술을 마신 뒤에도 머리가 아프지 않고 개운하며, 트림이 나오지 않는 특징이 있다. 벌써 술 제조 관련 특허만 10여 개가 넘는 최 회장은 매일 아침 6시에 산을 올라 본인이 만든 막걸리 두어 병을 마신 후, 혈당을 체크한다.

“술을 마시고 나면 혈당이 뚝뚝 떨어져요. 사실, 이 전통주는 나를 위해 만든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양조업의 거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최 회장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 섬유공장을 운영하다가 당뇨병이 악화돼 40대 초반에 중풍에 걸리게 되고, 산에 올라 음이온을 쬐면 좋다는 사람

들의 말에 결국, 음이온 사업을 하기로 결심, 연구에 몰입하게 된다.

1989년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음이온 공기청정기’를 개발, 1992년 첫 제품을 내놓게 된다. (주)청풍을 이끌고 최 회장은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한다. IMF 외환위기 때에도 오히려 매출과 순익이 늘어 국내 공기청정기 판매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 한우물 과거식 경영의 선봉자임을 과시하게 된다. 하지만, 그에게도 청천벽력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음이온 공기청정기로 세계 각국의 발명품대회에서 8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등, 이후 놀라운 판매실적으로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이온은 인체에 해롭다며 시민연대에 고발을 했죠. 이후, 추적60분이다 뭐다해서 17차례에 걸쳐 음이온 유해에 대해 방송했어요. 공장은 서서히 망하기 시작했고, 저는 신경을 너무 쓴 나머지, 두 번이나 심장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양쪽 눈은 거의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청풍과는 이별을 하게 되었죠.”

이후,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최진순 회장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한평생 발명을 위해 홀로서기를 하였던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었다. 고향인 강화로 내려와 재기를 꿈꾸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기쁠 때, 슬플 때, 친구를 만났을 때, 공양할 때 할 만한 것, 그리고 청정지역인 강화에서 할 만한 사업을 찾게 된다.

양조업. 최진순 회장 인생의 제 2막을 열게 해준 사업. 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가 막걸리를 선택한 이유는 전통주를 만들어 모든 이들이 우리 술에 대한 명맥을 유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술을 만들겠다는 일념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일반 술과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법. 한 때는 타고난 발명가라고 불리어지던 사람이 다른 이와 똑같이 장사할 순 없었다. 연구를 거듭한 끝에 최 회장만의 특별한 전통주가 완성되었다. 6년근 인삼만을 사용한 인삼막걸리, 강화도 순무의 특유 맛이 살아있는 토종순무 막걸리, 만병통치약과 다름없다는 썩을 이용한 사자발약썩 막걸리를 잇따라 개발하였다. 이들 제품은 한번의 살균 과정을 거쳐 탄산을 넣는 비법을 사용해 기존 막걸리 유통기간(10일)에 비해 보관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었다. 술이라고 보기 힘들 정

도로 좋은 약재를 사용하여 누구나 건강음료로서 마실 수 있는 것이 그만의 전통주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나 오가피, 포도 등을 이용한 막걸리도 만들 예정으로 복분자막걸리는 이미 개발 완료되어 시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쌀로 만든 보드카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강화 찬우물 고향 생막걸리는 인천 시의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인천 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청와대에서까지도 건배주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순 회장은 서울, 인천, 부천 등지에 대리점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에 전통주가 필요한 곳이면 공장을 더 세울 계획이다.

####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발명이든 공부든, 어떤 걸 하더라도 세계에서 최고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의지를 갖고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중풍에 걸렸다고 그냥 누워있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모든 걸 포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발명특허 2008. 4

취재\_ 김민국 주임(혁신기획팀)

